

보도 일시	2022. 4. 8.(금) 09:00	배포 일시	2022. 4. 8.(금) 09: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태욱 (044-203-2811)
		담당자	사무관 김윤아 (044-203-2816)

##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 투입해 무장애 해안관광 도시 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숙박, 식음료, 쇼핑)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여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전문가 토의 등 엄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관광 매력도, 사업추진 역량, 민관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강릉시 1곳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바다와 커피 등 뛰어난 관광 자원과 더불어 탄탄한 사업추진조직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개년 동안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성공 비결이 있다는 점 역시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무장애 관광교통환경 개선, 민간시설 포함 관광시설 간 연계 강화 등 추진

강릉시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비롯해 강릉시가 성공적인 무장애 관광도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상담, 무장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강릉시는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쇼핑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통합관광정보 안내, ▲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무장애 관광도시’에서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지의 매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여행 과정 중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최대한 줄인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롭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개념)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등에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

- 개별 관광지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인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성 강화로 확장한 사업

- (내용) ▲ 관광약자 이동수단 마련, ▲ 민간시설(숙박·식음료 등)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지역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 (추진방식)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3개년 계획\*을 공모 선정해 민관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조성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1년) 관광교통 환경 개선 → (2년) 관광인프라 조성 → (3년) 종합 관광서비스 구축

- (지원대상)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광역 지자체 연계

- (지원규모) 1개소/ 15억 원(3년간 최대 40억 원, 지방비 1:1 대응)

□ **주요 특징**

